

KREI NEWSLET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4년 3월 26일 발행 (월간 · 비매점)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 · 편집인 이정환(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이세인 · 김재극/(인쇄 · (주)문우사)

농업·농촌 문제 해법, 사회적 합의가 관건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농업·농촌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17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의 활로를 농업계 밖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 통한 합의 도출 중요

이날 토론회는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1994년 이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하는 「성장파소독의 괴리」현상을 설명하며,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파생되는 농가소득 문제, 도농 지역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물론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는 주장을 폈다.

구조조정 정책 의견 엇갈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박사는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은 차별화에 있으며, 보호가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철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김영래 교수는 “농민은 생산업자 마인드에서 제조업자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서강대 인세영 교수는 “정부는 우리농업구조가 효율성 높은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선진농가 육성과 정부 중심의 농업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육동인 논설위원은 “농협은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두산 R&D센터 식품연구소 허병석 소장은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저장, 물류 시스템은 국가적인 인프라므로 국가사업으로 지원 및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농업도 산업으로 봐야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삼성경제연구소 이연오 전무는 농지보전 재검토, 농업·농촌 유관기관의 개혁, 기업과의 제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7명의 지정토론과 5명의 청중토론이 있었다.

각계각층 의견 다양하게 수렴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책 농정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과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계 밖의 인사들을 토론자로 초청해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농업·농촌 비전에 대해 토론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농업계 밖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비자, 농업계와의 토론회를 열어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계획이다.

농지은행 친환경 농업 장관보고

우리 연구원 김홍상 연구위원은 3월 31일 ‘농지은행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과제’란 제목으로, 김창길 부연구위원은 3월 25일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정 방향’이란 제목으로 농림부에서 허성만 농림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

UNESCAP과 농촌개발 컨설팅 자문용역 체결

개도국 농촌개발 컨설팅, 교육, 정책평가 사업 참여

우리 연구원은 2월 12일자로 UNESCAP이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의 빈곤타파를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개발 시범사업의 컨설팅을 담당하기로 하고 자문용역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18개월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의 농촌개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활동을 한다.

우리 연구원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컨설팅과 교육, 정책평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베트남에서 이미 한국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하는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자문활동을 전개해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우리 연구원은 UNESCAP의 농촌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2주간 연구원에서 이들 3개국의 정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농촌새마을운동 추진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네팔의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현지 조사 자문 활동을 마쳤다.

UNESCAP이 추진하는 농촌개발 시범사업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농촌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새마을운동은 마을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발,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들의 자조·자립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농촌개발운동으로 1970년대의 고질적인 농촌빈곤을 털어버리고 고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촌새마을운동 모델이 마을단위 생산 인프라 개발과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주민조직 개선과 주민 참여 증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탈피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포고버섯 관측월보 발행

우리 연구원 산림정책연구실에서는 지난 3월 15일자로 봄 품목과 더불어 올해부터 포고버섯 품목을 추가해 임업관측 4월호를 발행·배포하였다.

이번 포고버섯 임업관측월보에는 국내 포고버섯 재배동향, 집중희망 포고버섯 종균의 종류, 수확가능 골목본수의 실태, 3월초의 폭설피해를 고려한 생산 및 가격동향과 전망, 건포고 수출입 동향 등을 관측해 포고버섯 재배 농가에게 제공하였다. 앞으로 포고버섯에 대한 관측월보는 매월 15일에 발행하여, 재배농가들의 생산과 출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포고버섯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측 결과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을 통해 볼 수 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교양강좌 개최

우리 연구원은 2번에 걸쳐 59박 60일의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서경대

서길수 교수를 초청해 3월 16일 대회의실에서 KREI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KREI 교양강좌에서 서길수 교수는 2차례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며 경험한 체험담을 생생하게 들려 주었다.

서길수 교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놀라운 경험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필수적인 21세기 실크로드로 앞으로 경원선이나 경의선이 연결되면 많은 이들이 이 길로 유럽을 오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역사학자로서 시베리아 역사를 조명하고, 경제학자로서 시베리아 경제적 가치를 탐색자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KREI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패널 구축 자문회의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3월 11일 중회의실에서 한신대학교 한근식 교수를 비롯 연구진들이 모여 소비자패널 구축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연구원 홈페이지 www.krei.re.kr

3월까지 설계세미나 총 27건 마쳐 올 연구사업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올해 시작되는 27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설계세미나를 3월중에 마쳐

우리 연구원은 그 동안 구상해 온 연구에 착수해 활발하게 토론하며 올해 계획한 연구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한 연구설계세

미나는 3월 24일 현재 기본연구과제 22건을 비롯 총 27건이 완료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연구사업 목표를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국가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초 및 정책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수요 효과적 대응 위해 연구팀제 조정

경영, 지역경제, 국제농촌개발, 여론정보팀 신설, 복수팀제 운영

우리 연구원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팀제를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팀을 신설하고, 부서내 다른 팀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복수팀제를 운영하는 등 팀제운동을 일신했다.

이번 팀제 조정으로 신설된 팀은 경영팀(강창용 연구위원)과 지역경제팀(김은순 부연구위원), 국제농촌개발팀(김경덕 연구위원), 여론정보팀(김동원 전문연구원)이 신설되었다. 또한 환경기술팀은 환경팀(김창길 부연구위원)으로, 축산원에팀은 축산팀(송주호 연구위원)으로, 농지팀은 토지수자원팀(김수석 부연구위원)으로, 출판팀은 연구성과관리팀(지성구 2급관리원)으로 각각 팀명을 바꿔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부서의 연구자는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부서 내에 있는 다른 팀에 가입해 연구할 수 있도록 부서내 복수팀제를 운영한다.

앞으로 각 연구팀은 해당분야 연구는 물론 연구능력향상을 위한 제반활동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며, 토론회 개최, 연구그룹으로서의 정보교환, 자료축적 및 관리, 사이버포럼 운영 등 연구구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보 검색교육 실시

자료정보지원실은 지난 3월 9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해외데이터베이스 검색과 CMS(Citation Management System)의 하나인 Scholar's Ai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해외데이터베이스 검색교육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교육은 원내 이용자 중 해외데이터베이스 Power User인 임승수 부연구위원이 자주 활용하는 인터넷 검색엔진인 Google과 Elsevier사의 Science Direct 등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경제 경영 분야 전문데이터베이스인 ERSCO Host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보고서 참고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CMS)에 대한 교

육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국내외 대표도서관과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여 목록, 웹문서, 이미지 등을 Drag and Drop 방식으로 옮겨오면 자동으로 참고문헌의 출처가 주석으로 표시되고, 마지막에 참고문헌이 자동생성되는 시스템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검색교육에는 25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고, 앞으로 자료정보지원실은 올 중반에 다시 한 번 정보 검색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KRE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25일 OECD Aglink 모형 운영자인 그레고어 탈라드 씨를 초청해 KRE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그레고어 탈라드 씨는 'OECD 전망사업과 Aglink 모형'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송천리 주민들에게 감사패 받아

우리 연구원은 2004년 2월 27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002년에 우리 연구원 박시현 연구위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황의식 부연구위원, 성주인 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구한 '소래지구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을 통해 제한한바 있는 떡체험장의 준공식이 이루어지게 되어 송천리 마을 주민들이 준공식 기념식에서 연구원에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송천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민속떡을 만드는 마을로 이번에 송천리에 떡체험장이 준공되어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마을 활성화도 꾀하게 되었다.

농산물전자상거래포럼 세미나 개최

연구분과 설치 및 포럼 활성화 방안 모색



농산물전자상거래포럼이 3월 20일 개최한 농산물 인터넷비즈니스 세미나

상거래 사이트를 조사하여 어떤 요인이 농산물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고 사이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유의한 토론 자료를 제공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포럼은 올 가을에 '농산물전자상거래 연구

우리 연구원 농산물전자상거래포럼은 지난 3월 20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농촌진흥청 이철희 박사는 '농산물 인터넷비즈니스 성공요인 분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지난해 포럼활동 보고와 2004년 사업계획, 그리고 농산물전자상거래포럼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철희 박사는 현재 농기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산물전자상거래 우수사이트 추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럼 내에 연구분과(위원장 농촌진흥청 이철희 박사)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한 농산물전자상거래포럼 활성화를 위해 포럼 사이트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포럼의 홍보 강화를 위해 포럼회원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종사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개방화 시대의 협동조합

황 의 식 부연구위원

농협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드세게 표출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조합원에 의한 조합감사가 확산되고, 청산을 결의한 조합도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이 보다 강한 주인의식을 나타낸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렇지만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농협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우리 농협은 재개발 상태의 농촌을 발전시킨 성공적인 협동조합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개방화 시대에 의한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이다. 시장개방 이전에는 농협은 신용을 공급하고, 단순 공동판매 기능만 수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물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전은 명목소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한적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새로운 소득증대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을 농협에 요구하고 있다.

시장요구 충족이 과제

개방화는 국제적인 시장통합을 의미하고 커다란 시장변화를 가져왔다. 농산물을 수요하는 소매점이 점차 대형화, 체인화 되고 집중도가 확대되고 있다. 빅3의 법칙과 같이 상위 3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 생산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서 수요가 지배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가고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높은 가격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체도 위협받는다. 시장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기능은 규모화 된 농가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농가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확 후 농산물 공급능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개방화 시대 농협으로 전환

우리 농협이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잘 충족하는 개방화 시대의 협동조합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만의 특이사항이 아니다. 선진국 협동조합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합병이 진행되고, 주식회사 운영원칙이 도입되는 등 조직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적응에 실패한 협동조합은 파산하고 있다. 미국의 Tri-Valley가 그렇고, 캘리포니아 쌀 협동조합이 그렇다. 이전에는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평가받던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 농협의 모습은 어떠한가? 개방화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농가만큼이나 경쟁력이 없다. 사업체제도 신용사업이 중심이 되어 판매사업은 환원사업이라는 인식이다. 조합원의 참여도 충성도도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당연히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기대와 조합의 역량 간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협갈등의 출발이다.

이제는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조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능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읍면단위로 분할된 영세한 규모의 조합체제로는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단순 기능의 판매사업을 개선하기도 어렵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농협의 산지유통사업을 대체시

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은 최소한 시군 단위의 규모는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더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직은 유연하게 하고, 회원농협뿐만 아니라 중앙회도 참여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지향형 산지유통조직

그런 산지유통조직은 시장지향형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로 영입하고, 조합원 정예화가 필요하다. 계약관계에 의해 조합원의 출하권을 위임받고, 조합원의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시장이 요구한 농산물의 구색을 개발하여 이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전략을 수립하지는 것이다. 모든 농가를 만족시키는 전략으로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마케팅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네트워킹도 강화하여야 한다. 상품구색이 맞지 않고, 출하시기의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휴관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 농산물, 국내 농산물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마케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외국산 농산물과의 제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개혁과제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야 한다. 농협이 산지마케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어야 한다. <

쌀 협상의 쟁점: 민간수입비율 설정의 의미

서진교 부연구위원

정부가 쌀 협상 개시 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이번 통보에서 쌀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3개월 이내 그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앞으로 한 달 이내 쌀 협상 관련 이해당사국이 공식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번 쌀 협상에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한 국가는 미국이외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지만, 그나마 미국이 2개월 이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우리의 쌀 협상 상대국중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협상 최대 쟁점, 의무수입물량 크기

쌀 협상은 사실상 관세화유예에 연장을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유예연장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의 크기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수출국들은 당연히 의무수입물량의 대폭적인 증량을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유예연장을 위해 수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양허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 협상을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협상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하다.

쌀 협상의 쟁점은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이외에도 그 관리문제가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중순에 이번 쌀 협상에서 의무수입

물량의 증량이외에도 우리 시장에 미국 자체의 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의무수입물량중 약 8~15%는 동시매매입찰이라고 해서 최종 소비용으로 할당되어 왔으며, 대만의 경우도 의무수입물량중 35%는 민간의 자율적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수입비율 큰 쟁점 될 것

한편 DDA 농업협상에서도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쌀 협상에서도 유예연장에 따라 설정될 의무수입물량의 관리측면, 특히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비율의 설정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율수입은 비록 그 물량의 크기가 의무수입물량 이내라고 해도 대형 할인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에서 외국산 상표를 단 수입쌀이 국내산 쌀과 같이 판매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의 국영무역방식에 의해서 관리되던(특히 가공용에 한해서 공매하고 잔여물량은 정부에서 재고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장격리 효과가 있었던) 상황과 달리 일정 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서는 소비자를 두고 국내산 쌀과 직접 경쟁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국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밥맛 좋은 쌀을 선호한다고 보면 가격보다는 품질이 중시될 것이고, 값비싼 일본의 쌀이나 미국산 쌀의 수입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의무수입물량의 관리문제는 증량 문제 못지않게 국내 쌀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MMA-민간수입비율 냉철 분석해야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쌀 시장의 추가 개방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쌀 협상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개방의 추가 폭은 비단 양적인 측면 뿐 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유예 연장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의 양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에 있어서 민간수입비율의 크기 및 세부 조건도 또한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국내 쌀 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만의 WTO 가입시 관세화유예에 따른 민간수입의 허용은 그 비율 자체도 쌀 값 하락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보다는 민간수입률이 당해연도에 모두 시장에 공급되도록 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민간유통업자들은 당해연도에 의무수입물량이 모두 시장에 방출될 것에 대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미리 일시에 시장에 방출했고 이것이 쌀값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의무수입물량과 민간수입비율 간의 이해득실 관계를 냉철히 분석해서 쌀 협상에 따른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 쌀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방향에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적인 숫자에만 매달려 의무수입물량의 크기를 줄이는데만 신경쓰고 질적인 면과 세부 부대조건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민간수입비율의 설정 등)를 간과한다면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 >

중국의 쌀 수급불안과 긴급대책

세계 쌀 수급이 긴박하여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최근 사재기 등으로 '쌀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의 단립종 쌀가격은 지난 1월초에 비해 30%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세계 전체의 쌀 수급을 보면, 지난 5년간(1999~2003년)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은 감소하여 재고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은 1999년 4억 867만톤에서 2004년 3월 현재 3억 9,094만톤으로 감소한 반면, 소비는 3억 9,311만톤에서 4억 1,414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재고는 1억 4,691만톤에서 8,344만톤으로, 또 재고율은 38.0%에서 20.1%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중국 쌀재고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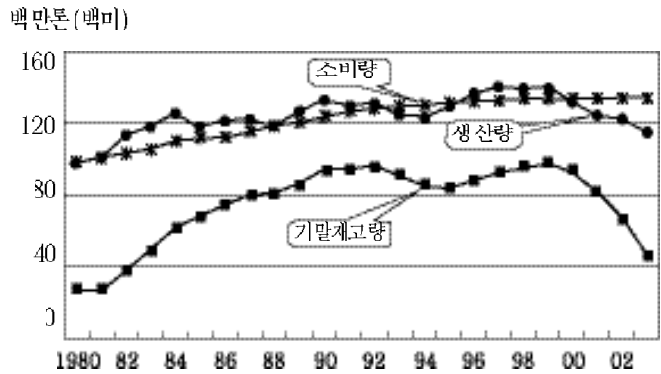
쌀 생산은 주로 아시아지역에 9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주요 생산국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이며, 세계 7대 생산국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쌀 생산대국 중국에서 최근 생산이 감소하여 재고가 대폭 감소하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지난 5년간 쌀 수급을 보면, 생산은 1999년 1억 3,894만톤에서 2003년 1억 1,50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는 1억 3,376만톤에서 1억 3,500만톤으로 늘어났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2,000만톤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수출은 1,084만톤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부족을 재고로서 충당한 결과로 재고는 9,850만톤에서 4,647만톤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참조).

재고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중국의 일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종래의 빵이나 만두 등 밀 중심에서 쌀 중심으로의 소비전환과 맞물려 금년초에 소위 '쌀값파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제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쌀 수출가격을 보면, 2001년 이후 단립종 톤당 가격이 300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2003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금년 3월초에는 570달러까지 급등하고 있다. 이와같은 높은 수준의 가격은 2004년산 신곡이 출하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이 감소하는 요인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저가로 인해 농가의 인디카계통 식부의육 감소가 현저하였고, 또 정부의 고품질정책으로의 전환에 의해 2기작 식부가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쌀 수급 및 재고량 추이



자료 : USDA

둘째,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곡물 수매가격을 인정한 것이 생산감소를 유발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한발이나 홍수 등과 같은 기상재해가 생산감소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쌀 수출금지 조치 발동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제한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옥수수 수출을 일부 제한하였으며, 쌀에 대해서는 수출공사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한국, 일본, 홍콩을 제외하고는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하는 등 국내 자원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지난 3월초 북경에서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쌀을 비롯한 식량생산을 장려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300억 위안(4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생산을 2003년도 4억 3,000만톤에서 2004년은 4억 5,500만톤으로 5% 증산을 목표로 하고, 향후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4억 8,500만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세계 각지에서 곡물을 비롯하여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재 국제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가격이 상승해도 공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제품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고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5년 연속 계속되는 생산 감소가 회복되지 않거나, 금년에도 기상 재해가 발생하여 감수를 초래한다면,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는 식량위기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근 부연구위원>

쌀 재협상 대책팀 가동, 농협개혁 본격 추진

개방 대비 농정 본격 가동

농림부는 3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쌀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을 이달 중 출범시키고, 농협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던 농업 정책자금의 취급을 일반은행에도 개방하는 등 농협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는 10개년 농정로드맵에 의한 농정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 119조원 투융자사업의 관리를 위해 '투융자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등 집행,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농촌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농업정책국을 농업구조정책국으로 바꾸는 등 농정의 기능 변화에 따른 내부 조직의 부분적인 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는 업무보고가 수매제폐지와 미온적인 농협 개혁안을 담고있다고 비판하였고, 언론들은 개방에 대응하는 농정이 본격 시작되었다고 논평하면서 특히, 농협개혁과 쌀 재협상 대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정부담형 농정 체제 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경제연구원이 3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KREI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업의 위축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하는 등 국내 농업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 '재정부담형 농정' 체제를 주문했다.

특히, "지난 90년대 초부터 추진된 농업투융자 확충에 힘입은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실질가격이 95년부터 연평균 1%씩 하락, 가계비 부담을 줄였다"면서 소비자의 농업지원을 위한 세금부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92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업 발전을 위해 2003년까지 72조원을 투입한 '농림어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와 투명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 오는 7월 대규모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3월 18일 밝혔다.

조합원에 의한 조합해산 파장...농협개혁 여론 비등

올 들어 파주 교하농협과 구미 장천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의 자율적인 해산을 추진하는 등 전국 10여곳의 지역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임금감축, 대출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하농협은 조합 해산이 거론되면서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 농림

부가 사업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등 농협문제가 표면화되었으며, 장천농협은 3월 20일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농협 처음으로 자율해산이 결정되었다.

<조선>, <중앙> 등 언론들은 농협의 방만한 운영과 파행은 조합장 직선제의 폐단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농협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도 지역농협을 500개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협개혁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한편, 일부 언론이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단위 조합 통폐합과 신용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산증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개혁 방향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쌀 개방 반대 서명

3월초 내린 폭설로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5,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3월 10일 폭설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하자 <세계>는 비현실적인 농작물 재해 보상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조의 보도를 했으며,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도 재해지원금의 현실화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쌀 재협상 F/T팀을 구성해 협상에 본격대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3월 10일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2004년 쌀 개방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갖고 쌀 개방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및 낙선운동 추진을 천명하였다.

'농지제도 개편' 논의, 농업관측 강화

농특위가 3월 17일 개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정책협의회에서는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또 농지조성비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개편하는 방안, 개방화에 따른 농지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농지유통 정보화 지원 및 신탁기능도입 등의 농지관리가능 확충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KREI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칠레 현지에서 관측 요원 2명을 선발, 운영하고 중국지역 관측요원은 현행 8명에서 2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관측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농산업 기술혁신과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농림과학기술정책포럼 주최로 3월 12일 개최



농림과학기술정책포럼은 제3차 세미나를 3월 12일 연구원에서 개최

농림과학기술정책포럼 주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와 농림기술관리센터가 공동으로 농림과학기술정책포럼 제3차 정기세미나를 3월 1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산업 기술혁신과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국대 김선주 학장은 ‘농림부문 중장기 대형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림기술 선진화 및 미래 유망 중대형 연구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새로운 모형의 R&D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어 농림기술관리센터 서종혁 소장은 ‘지역농업발전 농림기술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기술개발 중심형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1시간 30여분에 걸친 토론에서는 한국 농산업 기술의 혁신과 지역클러스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 연구원 내방객

△ FAO 미첼 사비니 사무총장보가 FAO 채용조사단 단장자격으로 방한해 3월 8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허길행 부원장과 박성재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환담했다.

△ 미주리대학교 넬슨 前 농대학장이 3월 23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이정환 원장, 박성재 기획조정실장, 오세의 선임연구위원 신승열 연구위원과 환담을 나눴다.

■ 연구진 동정

△ 오세의 선임연구위원은 ATCWC의 장 자격으로 칠레에서 열린 제1차 APEC 고위급 회의 및 관련회의 참석과 칠레 포도모니터 선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2월 27일 칠레로 출국했다가 3월 6일 귀국했다.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3월 16일 통계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농업총조사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3월 23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팀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최세균 연구위원은 3월 19일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FTA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어명근 연구위원은 3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임산물 수출확대회의에서 ‘한·일 FTA가 임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 박시현 연구위원은 3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관광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김홍상 연구위원은 3월 26일 경제사회연구회가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김창길 부연구위원은 3월 5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린 21세기 OECD 환경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3월 25일 강원대 개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정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 연구원 인사

△ <전보발령> 기획조정실 이성복 1급 관리원, 지성구 2급관리원, 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연중 부연구위원

△ <팀장임명>사회복지팀 박대식 연구위원, 지역개발팀 송미령 부연구위원, 정책분석팀 김태근 부연구위원, 국제무역팀 어명근 연구위원, 과체팀 이용선 부연구위원, 전산지원팀 한근수 전문연구위원

△ <신규발령> 조성열 전문연구위원(농정연구센터)

ABARE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이정환 원장과 브라이언 피셔 소장이 연구협력 협정 체결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호주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 브라이언 피셔 소장과 상호 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일 ABARE에서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했다.

ABARE는 호주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연구기관으로 우리 연구원은 이번 ABARE와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우리나라와 호주의 농업분야 협력관계는 물론 ABARE와 인력 및 정보

교류, 상호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추진과 세미나, 회의 등을 개최해 양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